

# 북한실상까지 다룬 인구학 입문서 생소한 용어사용 아쉬움으로 남아

## 인구의 이해

권태환 · 김두섭 지음

서울대출판부 / A5신 / 346면 / 7500원

인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은 두 가지로 규정지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인구의 과밀문제가 발생할 때, 다른 하나는 인구의 과소문제가 발생할 때이다. 인구의 과밀문제가 발생한 것은 유럽에서 엔클로저 운동으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나타났고 최근 개도국에서는 이촌향도에 의한 과대도시화로 발생되었다. 인구 과소문제는 지리상 발견시대 이래 신대륙의 재식농업지역에서, 그리고 20세기 선진국에서 경제활동의 불균형으로 일부지역에서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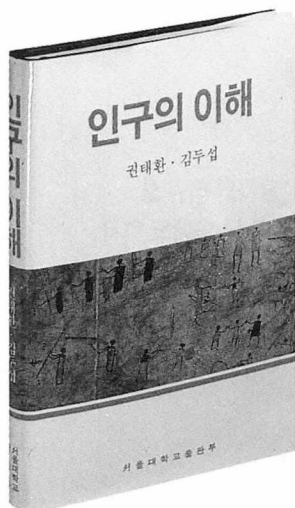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인구과잉문제는 6·25 이후 피난민의 도시집중, 그리고 공업화 이후 농촌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인구 과소문제는 1930년대 북부 공업지역에서, 그리고 공업화 이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인구문제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이르러 인구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인구학에 관한 저서가 드물었던 차에 인구학의 입문서를 내놓은 권태환, 김두섭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서는 모두 4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인구연구의 기초라는 제하에 제1장 인구학의 성격, 제2장 인구이론과 논쟁, 제3장 인구성장과 구조의 이해 등이 다루어졌다. 제2부는 인구성장의 구성요인이라는 제하에 제4장 출산, 제5장 사망, 제6장 인구이동 등이 다루어졌다. 제3부에서는 인구추세를 다루었는데 제7장 세계의 인구, 제8장 한국의 인구 등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4부는 몇가지 주요 관련 영역편으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9장 혼인력, 제10장 노동력, 제11장 인구정책 등이 다루어졌다.

서문에서 필자가 밝혔듯이 본서는 인구학 입문서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에 관한 책자는 통계나 열로 끝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모순을 잘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리고 북한 인구의 실상까지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째, 인구학에 관한 여러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모델에 적용하였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점과 둘째, 생소한 느낌이 드는 용어가 많이 제시되고 있어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유업자 접근(gainful worker approach) 등은 결국 유직자 또는 취업자가 아니겠는가. 이밖에 인구이동 부분에 있어 인구배출, 과잉도시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제7장·제8장은 많은 자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나치게 자료제시를 억제하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넷째, 인구정책은 과밀인구에만 집중되었는데 최근에는 과소인구문제가 인구정책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으므로 이런 문제도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직업별 인구의 불균형도 제시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구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 지리학, 경제학, 보건학,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구자가 다양하고 연구과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누구냐에 따라 초점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인구를 다룰 때는 인구의 사회학적인 특징을 다루어야 하는데 특징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결론적으로 본서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에게 본서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 崔雲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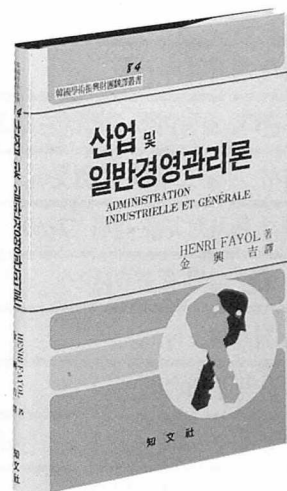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 서울대 문리대 및 동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프랑스 파리 제4대학 수학. 지리학 박사. 논문 「교통의 발달과 도시공간 구조」, 저서 「산업지리학」 외. 1941년생.

# 경영 및 행정관리의 현대적 고전 현장경험 근거한 '관리의 원칙' 제시

## 산업 및 일반경영관리론

앙리 파올 지음 / 金興吉 옮김

知文社 / A5신 / 210면 / 5000원



30여년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씌어진 경영학계의 불후의 고전, 「산업 및 일반경영관리론」(Administration Industrielle et Générale)이 비로소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앙리 파올(Henry Fayol; 1841~1925)에 의해 1916년에 씌어졌고 1945년에 영어로 번역되면서 경영학과 행정학계에 管理論의 근간 역할을 해 온 이 책이 경상대 김흥길교수에 의해 완역된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으나 경하해 맛을 일이다.

앙리 파올은 프랑스의 석탄회사 사장직에 1988년부터 1918년까지 머물면서 합리적 관리에 관해 이론적 체계를 형성했다. 그는 기업활동을 ① 기술적 ② 영업적 ③ 재무적 ④ 보전적 ⑤ 회계적 ⑥ 관리적 등 여섯가지 활동으로 분류하면서 이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관리기능이 중요하다고 설파한다. 앞의 다섯가지가 재료나 기계와 같은 물적 대상을 다루는 일인데 반해 관리는 이들 물적 대상을 다루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 한다.

파올은 자기 자신의 30년간 현장경험과 다른 경영자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하여 그 중에서 일반적 공통성을 찾아 소위 '관리의 원칙'을 들고 있다. 그는 기업의 원칙, 원환과 책임, 기강확립, 명령일원화, 지휘일원화, 개별이익의 전체이익에의 종속, 적정보상, 중앙집권, 관리계층 연쇄, 질서유지, 공정성, 고용의 안정성, 자발성, 종업원의 단결 등 14가지 관리의 원칙을 들고 있다.

파올은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때에는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현대경영학의 '조건부 접근법'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상의 관리원칙에 대한 파올의 분석은 너무나 열석이며 체계가 결여되어 있는 감이 든다.

파올은 제2장에서 경영관리의 요소를 논하고 있고 이 부분이 파올이론의 백미라 할 수 있다. 파올은 관리의 기능 속에서 ① 기획 ② 조직 ③ 지휘명령 ④ 조정 ⑤ 통제 등 5가지 요소를 찾아냈다. 이 다섯가지 요소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파올은 분석을 않고 있으나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앞에 열거한 순서대로 단계

적으로, 또 순환적으로 실시되는 관리의課程學派가 뒤에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파올의 이 책은 정통 경영학의 흐름 속에 거대한 본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쿤츠(H. Koontz) 같은 대가도 "오늘날 경영학의 아버지는 파올이다"라고 선언했을 것이다. 경영학도와 일반 경영인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 尹錫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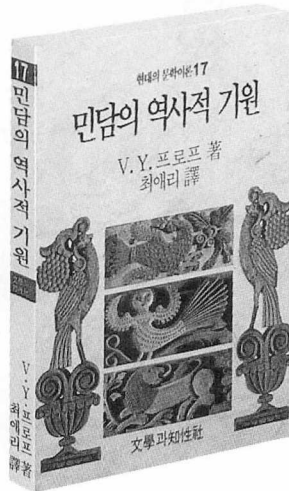
서울대 경영대 교수. 서울대 물리학과,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졸업(박사). 1940년생.

# 민담의 기원에 대한 통시적 탐구 원시제의와의 상관성 강조해

민담의 역사적 기원

V. Y. 프로프 지음 / 최애리 옮김

문학과지성사 / A5신 / 462면 / 6500원



이 책의 저자인 블라디미르 프로프(1895-1970)는 이미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설거나 생소한 존재가 아니다. 그의 저서인 「민담의 형태론」(1928)이 1958년과 68년(2판)에 영어로 번역됨으로써 이 책이 지닌 특유한 형태론적인 기여 내지는 소설시학에의 의미있는 시사의 성가를 접한 구비문학 및 서사구조론에의 관심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이다. 그는 러시아의 민담을 주대상으로 하여 그 서사구조를 분석 해명하고 있는 이 「민담의 형태론」에서, 민담이란 근원적으로 몇몇 구성의 결합성 분요소들과 기능들로 이루어진 구조적인 구성체나 동질체로 보는 가운데, 이러한 요소의 균등성과 반복을 분석했던 것이다. 특히 31가지로 분류한 그의 '기능'론은 이 서사요소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행동의 과정을 위한 의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인물의 행위'를 일컫는다. 이 기능에 입각해서 모든 민담이 구조적으로 동질적이라고 보고 인물들의 기능은 이야기에서 안정적이고 불변적인 요소로서 이야기의 근원적인 구성성분이란 것, 기능의 수는 31개, 기능의 연쇄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 모든 민담은 그 구조에 있어서 한 유형이라는 것 등의 기본원리와 법칙성을 찾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31개의 기능은 7개의 실행자들의 '행동의 영역'에서 배분된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 구성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민속문학을 위한 고전이 되어 있는 「형태론」에 비해서 「민담의 역사적 기원」(1946)은 우리에게 그리 익숙하게 잘 알려진 책이 아니지만, 프로프의 방법론과 사고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책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형태론의 미완 결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따라서 전자가 민담의 구성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면 후자는 민담의 역사적인 기원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 통시적인 연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 두권의 책은 후자가 전자로부터 직접 유도되어진 것이며 또 전자는 후자의 입문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아주 광범한 역사적·민속학적·신화론적 탐구로 이루어진 업적이다.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첫장 '전제들'에서 프로프는 민담과 그 연구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자세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의 중심사상은

민담의 기원에 대한 가설인 이주설등을 비판하고 민담이란 일정한 구성을 갖고 있는 장르로서 보고, 발생적으로 원시사회의 제의와 사고 개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법칙성을 찾아내는 것을 주장한다. 이같은 그의 전제를 밝혀가기 위해서 2장에서 9장까지는 감금과 불행, 신비한 숲, 큰집, 증여자, 마술적 선물, 횡단, 불의 강, 왕국, 약혼녀와 과제등의 제 모티프를 분화하여 이에 대해서 상론함으로써 민담학이나 서사학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매우 좋은 책을 골라서 성실하게 번역·소개한 역자와 출판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와같은 양서가 소개됨으로써 한국의 구비문학 내지는 민속문학의 이론적인 체계화에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서사문학의 해명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아울러 번역서가 흔히 갖기 쉬운 용어정립의 소홀성을 가급적이면 피하기 위해서 각주를 남김으로써, 금후 검토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번역태도와 노력도 매우 온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가운데서도 역자에게 굳이 충고의 고언을 할 수 있다면, '~들' 운운의 복수개념의 번역이 너무 빈출됨으로써 국어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직역적 축자 양상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 이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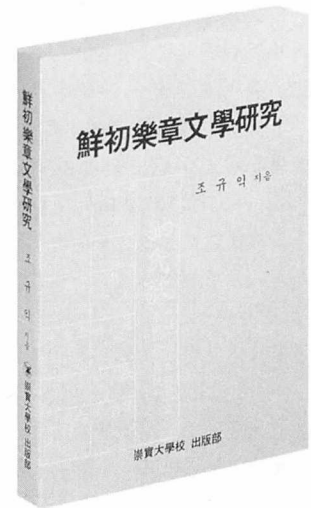
서강대 국문과 교수. 서울대 국문과 및 대학원 졸. 문학박사. 저서 「한국현대소설사」, 「한국문학주제론」외. 1936년생.

# 악장문학의 전모 담은 심층연구서 문학적 분석력과 심미안 돋보여

鮮初樂章文學研究

조규익 지음

崇實大出版部 / A5신 / 454면 / 10000원



이미 「조선초기아송문학연구」(86년), 「朝鮮朝詩文集序·跋의 研究」(88년) 등의 무게있는 저서를 상재하여 우리 고전시가문학연구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조규익 교수가 이번에 또다시 前著 「아송문학연구」 중의 한 부분인 樂章만을 따로 떼내어, 이를 심화·확대시킨 끝에 「鮮初樂章文學研究」라는 이름을 붙여 학계에 내놓았다. 450여 쪽에 달하는 이 방대한 역저를 대하면서 우리는 먼저 30대 초반의 소장학자로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연구열에 놀라움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년 터울로 연달아 학계의 관심을 끌만한 저서를 3권씩이나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감당해낼 일이 아닐 것이다.

「樂章」은 우리 고전시가의 특수한 갈래로서 宮庭 중심의 귀족문학이라는 내용상의 특성 및 고려가요와 시조 사이에 놓일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장르史的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심층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럼에도 이 방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형성했던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침내 조교수에 의해서 악장문학의 전모가 거시적으로 혹은 미시적으로 파헤쳐져서 단독저서로는 거의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었다는데서 이 저서의 연구사적 의의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인 「장르의 成立과 國文學의 位相」에서는 '선초악장의 형성 및 장르적 성격' '개인 제작 악장' '공동 제작 악장' '선초악장의 완성형 : 용비어천가' '문학사적 의의'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제2부인 「補論」에서는 '조선왕조 실록 所載 시가작품의 문학적 위상' '조선조 시가 수용의 한 측면' 등의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록편을 따로 설정하여 그동안 많이 소개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을 제외한 한문 및 국한문 혼용의 개인·공동 제작 악장과 개인이든 공동이든 작가 미상의 주요 작품들을 90쪽에 걸쳐 그 원문을 인용한 뒤 이를 정확하고도 유려하게 번역해놓고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자료의 소개에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고전시가의 다른 갈래도 그렇지만 특히 선초의 '악장'은 학적인 능력과 조예가 없이는

함부로 덤벼들 장르가 아니다. 문학적인 분석력과 심미안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 옛 시대의 음악을 중심으로 한 예악에 관한 일정한 지식이 또한 필요하다. 자료의 정리와 이를 통해서 시가문학의 전반적 흐름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장르론적 안목이 있어야 하고 궁궐의 법도와 풍습, 여말선초의 시대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당대의 뛰어난 문인이자 경세가들이던 몇몇 개인 작가들의 행장과 사상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연구가 가능한 분야이다.

저자인 조교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두루 갖춘 나머지 선초 한문악장의 형성에서부터 그 종합적인 완성형인 '용비어천가'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빈틈없이 분석·고찰해놓고 있다. 鄭道傳·權近·河崙·卞季良·崔恒의 개인 제작 악장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도 매우 훌륭하거나 이것이 공동 제작 악장으로 포섭되는 경위에 관한 치밀한 고찰 역시 눈길을 끌기에 족하다. 「補論」부에 실린 두편의 논문에서 그의 학문적 시야의 넓음과 치밀함, 그리고 삼엄한 학자적 정신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좀처럼 취약점을 내보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저서의 출간을 계기로 그동안 관심을 덜 든 분야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파고들어가는 고전문학 연구풍토가 점차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 朴魯瑄

한양대 국문과 교수. 고려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 문학박사. 저서 「한용운 연구」 「신라가요의 연구」 「고려가요의 연구」외. 1938년생.